PP, 하락 후 반등기미 안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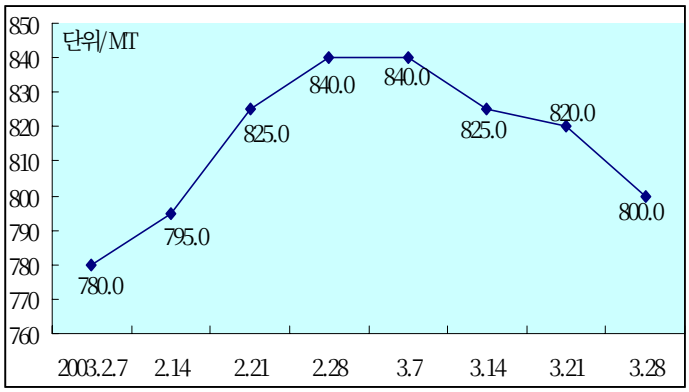
CFR FE Asia 톤당 800-820달러 … 전쟁 장기화 영향 크게 나타나

PP(Polypropylene) 가격이 계속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전쟁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여 2003년 4월에도 가격은 반등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03년 2월28일부터 3월7일까지 PP 가격은 CFR FE Asia 톤당 840달러대를 나타내다 3월14일부터 820달러로 하락하는 등 원료인 프로필렌 가격상승에도 불구하고 하락하는 기미를 보이다 LLDPE(Linear Low Density Polyethylene) 가격 하락으로 동반 하락한 것으로 SK는 분석했다.

2003년 3월28일 PP가격은 800달러로 3월21일에 비해 20달러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냈으며 국내 내수가격은 수출과 약 100달러 정도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PP 가격추이



LLDPE 가격은 2003년 3월21일까지 700달러대를 유지하다가 3월28일부터 CFE FE Asia 톤당 30달러 하락한 630-690달러를 나타냈다.

최대 수요처인 중국이 거래조건으로 낮은 가격을 요구하고 있으며, 중남미 지역도 이미 30-50달러 정도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거래가격은 50달러 정도 낮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K를 비롯한 삼성종합화학 등 국내 PP 생산기업들은 미국-이라크 전쟁 장기화가 예상되면서 PP 시장위축으로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다운스트림까지 시장위축으로 접어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김지영 기자>

<Chemical Journal 2003/04/02>

Copyright ⓒ 2003 by CMRI 화학경제연구원